



좋은 광고상 라디오부문

봄, 여름

김C)

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C입니다.
 혹시 백합탕이 결혼철에 인기 최고인 거 알고 계세요?
 바로 부부금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.
 전 이번에 부안에 다시 가서 알았더니깐요.

또 담양에선 죽순 나물을 맛보며
 우후죽순의 유래까지 알게 됐어요.
 굳은 땅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
 비가 온 후에 일제히 세상 밖으로 출동하는 죽순의 힘!

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,
 저 김C처럼 여러분도 떠나세요.

여NA)

이 공익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
 함께합니다.

가을

김C)

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C입니다.
 전 올 가을 파주에서 참게가 과거금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
 바로 참게가 갈대를 꼭 움켜진 모습 때문입니다.
 알고 먹는 참게탕의 맛,
 수험생들도 함께 드시는 거 어때요?

가을엔 꼭 서천에도 가보세요.
 집나간 머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.
 고소한 기름 때문에
 숯불에 구울 때가 막힌 냄새가 나거든요.
 하~ 다시 가고 싶다.

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,
 저 김C처럼 여러분도 떠나세요.

여NA)

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.

●광고주 : 한국관광공사 ●광고회사 : 제일기획 ●광고명 : 이야기 속 별미여행

시 쓰는 정호승입니다.

30년 전, 귀한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서점이란 정말 꿈 같은 곳이었죠.
 저도 교보문고에 빛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. (하 하)

여NA)

아닙니다,
 교보문고의 고객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을 밝혀주고 계시니까요.

교보문고 30년, 당신께 고맙습니다.

●광고주 : 교보문고
 ●광고회사 : 웰컴
 ●광고명 : 교보문고 기업PR- 정호승 시인